

# 2020 선생님을 위한 세계사 서양사편 정오표(1쇄 기준)

최종 업데이트 날짜: 2020. 04. 08.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p.9	502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	508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
p. 31	<p>④ 민회(apella)          ⑤ 20세 이상의 성년 남자 시민 전체로 구성</p>	<p>④ 민회(apella)          ⑤ 30세 이상의 성년 남자 시민 전체로 구성</p>
p. 37 -38	<p>(2) 경과          ① 1차          ⑦ 소아시아 정복: 리디아 격파(BCE 548)          ⑧ BCE 492 다리우스 1세 대군을 파견했으나(헬레스폰트와 트라키아 방면), 폭풍으로 아 토스 곳에서 함대 손상으로 철수          ⑨ 마라톤 전투(BCE 490) → 밀티아데스의 지휘 아래 중장 보병의 밀집대가 페르시아군 격퇴, 달리는 중장보병(running hoplite)의 활약(아테네 민주정 촉진)          ⑩ 테미스토클레스의 건의에 따라 대함대 건조, 그리스 세계는 아테네 중심으로 단결</p> <p>② 2차          ⑪ BCE 480 크세르크세스의 침입으로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왕 이하 전원이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전사          ⑫ 테미스토클레스, 아테네 시민들을 살라미스로 철수, 해전에서 결전 시도          ⑬ 살라미스 해전에서의 승리</p> <p>③ 3차          ⑭ BCE 479 플라타이아 전투에서 페르시아에 승리          ⑮ 수병이 속해 있던 사회 최하층 세력의 강화, 상공인의 경제적 지위나 발언권 증대</p>	<p>(2) 경과          ① 1차          ⑦ 소아시아 정복: 리디아 격파(BCE 548)          ⑧ BCE 492 다리우스 1세 대군을 파견했으나(헬레스폰트와 트라키아 방면), 폭풍으로 아 토스 곳에서 함대 손상으로 철수</p> <p>② 2차          ⑪ BCE 490 마라톤 전투 → 밀티아데스의 지휘 아래 중장보병의 밀집대가 페르시아군 격퇴, 달리는 중장보병(running hoplite)의 활약(아테네 민주정 촉진)          ⑫ 테미스토클레스의 건의에 따라 대함대 건조, 그리스 세계는 아테네 중심으로 단결</p> <p>③ 3차          ⑭ BCE 480 크세르크세스의 침입(Xerxes)          ⑮ 스파르타, 테르모필레 협곡 전투에서 국왕 레오니다스(Leonidas) 이하 전원 전사          ⑯ 테미스토클레스, 아테네 시민을 살라미스로 철수, 살라미스에서 아테네 함대 승리          ⑰ BCE 479 페르시아의 아티카 점령, 아테네 파괴, 스파르타 중장보병 5,000·경장보병 35,000을 중부 그리스로 파견, 10만여 그리스 연합군 플라타이아(Plataea) 전투에서 페르시아군 격파, 에게해의 사모스섬 진공해 페르시아 함대 대파</p>
p.39	<p>(2) 민회의 권한 대폭 강화          ① 외교, 전쟁, 식량 공급 결정, 입법에 관여          ② 민회는 1년에 적어도 40회 개최(약 9일에 1번: 거수투표)          ③ 개최장소는 프닉스(pnyx), 에피알데스 개혁 이전까지는 시장에서 개최          ④ 프리타네이아(약 35일)마다 4번의 정기 모임 ⑤ 임시민회 소집: 4~8회(통일적이지 않음), 협의회 의장이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장군들이 소집 요구</p> <p>(3) 500인회 권한 약화          민회에 제출할 의안 준비, 민회 결정사항의 집행 정도로만 축소</p>	<p>(2) 민회의 권한 대폭 강화          ① 외교, 전쟁, 식량 공급 결정, 입법에 관여          ② 민회는 1년에 적어도 40회 개최(약 9일에 1번: 거수투표)          ③ 개최장소는 프닉스(pnyx), 에피알데스 개혁 이전까지는 시장에서 개최          ④ 프리타네이아(10개의 데모스에서 뽑힌 의원이나 정기모임 소집단위인 35일을 짜칭, 도편추방 투표결정)          ⑤ 임시민회 소집: 4~8회(통일적이지 않음), 협의회 의장이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장군들이 소집 요구</p> <p>(3) 500인회 권한 약화          ① 아르콘 선출, 아르콘을 도와 국정에 참여          ② 민회에 제출할 의안 준비          ③ 이후 민회 결정사항의 집행 정도로만 축소</p>

p.40	<p>(9) 아테네는 문화적 중심지로서의 지위 획득 그림 2개</p>	<p>(9) 아테네는 문화적 중심지로서의 지위 획득 그림 2개 아래 추가</p> <p><b>⑩ 외교 정책</b></p> <p>① 아테네 제국 유지, 가능한 무력 사용 회피 ② BCE 449년 페르시아와 화평 ③ BCE 445년 스파르타와 평화 조약 체결</p>
p.44	<p>⑧ 필립은 곧 스파르타를 제외한 그리스의 폴리스들을 규합하여(코린트 동맹 또는 헬레네스 동맹) 페르시아 원정에 출발하려 하으나 암살(BCE 336)</p>	<p>⑧ <b>필리포스 2세</b>는 곧 스파르타를 제외한 그리스의 폴리스들을 규합하여(코린트 동맹 또는 헬레네스 동맹) 페르시아 원정에 출발하려 하으나 암살(BCE 336)</p>
p.56	그림 치안관	그림 치안관→ <b>감찰관</b>
p.63	<p>④ 로마의 패권에 대한 마지막 저항 세력인 타렌툼과의 싸움 → 타렌툼인들은 로마가 남부 이탈리아의 그리스 식민시들로 세력을 확대하자 그리스 본토의 그리스인들의 지원을 받으며 로마에 대결 → 스파르타 왕 아르키다모스와 클레오모니스, 에피로스 왕 알렉산드로스, 시라쿠사이의 아가토클레스 등의 그리스인들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명성에 걸맞은 군사적 명예를 꿈꾸며 타렌툼을 지원하기 위해 출병 → 로마와의 동맹을 거부하고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타렌툼도 BCE 272년에 로마의 패권을 수용</p>	<p>④ 로마의 패권에 대한 마지막 저항 세력인 타렌툼과의 싸움 → 타렌툼인들은 로마가 남부 이탈리아의 그리스 식민시들로 세력을 확대하자 그리스 본토의 그리스인들의 지원을 받으며 로마에 대결 → 스파르타 왕 아르키다모스와 클레오모니스, 에피로스 왕 <b>파루스</b>, 시라쿠사이의 아가토클레스 등의 그리스인들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명성에 걸맞은 군사적 명예를 꿈꾸며 타렌툼을 지원하기 위해 출병 → 로마와의 동맹을 거부하고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타렌툼도 BCE 272년에 로마의 패권을 수용</p>
p.64	<p>㉠ ‘분리해서 통치한다’는 원칙과 이탈리아 동맹시들의 특권들을 차등 분배한다는 원칙이 적용 ㉡ 로마 시민과 동등한 완전 시민권은 사비니인들에게 부여</p>	<p>㉠ ‘분리해서 통치한다’는 원칙과 이탈리아 동맹시들의 특권들을 차등 분배한다는 원칙이 적용 ㉡ <b>사비니인들에게는 참정권이 없는 시민권 부여</b></p>
p.65	<p>(2) 2차(BCE 218~202) ① 카르타고가 에스파냐에 제국을 건설하려 하자 전쟁, 한니발과 칸네(Cannae)의 전투 → 로마의 패배(BCE 216) ② 스키피오의 자마(Zama) 해전 승리(BCE 202) → 로마는 서부 지중해 패권 장악</p>	<p>(2) 2차(BCE 218~202) ① 카르타고가 에스파냐에 제국을 건설하려 하자 전쟁, 한니발과 칸네(Cannae)의 전투 → 로마의 패배(BCE 216) ② 스키피오의 자마(Zama) <b>회전</b> 승리(BCE 202) → 로마는 서부 지중해 패권 장악</p>

p.72	<p>알아두기 스파르타쿠스의 반란</p>	<p>p. 72의 알아두기 삭제, 사료탐구 추가</p> <p><b>사료탐구</b></p> <p>바로, 『농업론』 1.17.5~6</p> <p>만약 동일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면, 감독 노예들이 말보다는 채찍으로 노예들을 통솔하게 해서는 안 된다. …… 감독 노예들은 보상을 통해 더 열심히 일하게 해야 하며, 약간의 특유재산(주인이 노예에게 준 소액의 재산)을 허용하고 여자 노예와의 동거를 허용하여 자식을 갖게 하라. 이렇게 하면 그들은 농장에 더욱 애착을 가질 것이다.</p> <p><b>비판적 읽기</b></p> <p>스파르타쿠스의 노예 반란이 진압된 이후 큰 교훈을 얻은 로마인은 노예의 처우를 개선했다. 우선 숙련된 기술을 가졌거나 학식이 있는 노예는 전과 다름없이 여러 가지 유익을 누렸다. 가정교사로 활약하는 노예는 로마인 자체를 교육하여 그리스의 문화와 가치를 전했다. 주인이 부유하고 유력하면 그 노예는 일반 자유 시민보다 더 나은 처지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 주인을 대신하여 농장을 경영하고 사업에도 나설 수 있었다. 이들은 후한 상을 받거나 해방되기도 했으며, 일부는 큰 재산을 모으기도 하고 또 다른 노예를 거느리기도 했다.</p>
p.79	<p>⑥ 콤모두스(180~192): 대외적으로는 이민족의 침략에 시달리고, 대내적으로는 재정적 문란, 화폐의 악질화, 물가 등귀가 심각하여 로마 제국이 쇠퇴, 이후 암살당함</p>	<p>⑥ 콤모두스(180~192): 대외적으로는 이민족의 침략에 시달리고, 대내적으로는 재정적 문란, <b>화폐가치의 질적 저하</b>, 물가 등귀가 심각하여 로마 제국이 쇠퇴, 이후 암살당함</p>
p.81	<p>비판적 읽기</p> <p>……………카라칼라가 이런 법안을 통과시킨 이유는 로마시민만 군단병으로 복무할 수 있기 때문이었고, 상속세는 시민만 납부하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로써 보조병 운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p>	<p>비판적 읽기</p> <p>……………카라칼라가 이런 법안을 통과시킨 이유는 로마시민만 군단병으로 복무할 수 있기 때문이었고, 상속세는 시민만 납부하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로써 보조병 운에 큰 차질이 빚어졌고, <b>전쟁 중에 군사비 조달 등의 필요에 의해 특별세가 많아져 시민의 생활이 어려워졌다.</b></p>
p.85	<p>(4)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황제의 군대와 재정에 의지한 불안정한 제정, 불안정한 제위 계승</li> <li>② 로마 제국의 번은 정복에 의한 토 확장과 이에 수반된 전리품과 공납의 산물 → 기술 개발이나 혁신을 수반하지 않은 경제 발전</li> <li>③ 군대의 질 저하: 황제 개인의 사병화, 이민족의 군대 유입</li> <li>④ 정복전쟁의 종식으로 노예 공급 차질, 로마사회의 전반적인 봉건화</li> </ul>	<p>(4)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황제의 군대와 재정에 의지한 불안정한 제정, 불안정한 제위 계승</li> <li>② 로마 제국의 번은 정복에 의한 토 확장과 이에 수반된 전리품과 공납의 산물 → 기술 개발이나 혁신을 수반하지 않은 경제 발전</li> <li>③ 군대의 질 저하: 황제 개인의 사병화, 이민족의 군대 유입</li> <li>④ 정복전쟁의 종식으로 노예 공급 차질, 로마사회의 전반적인 봉건화</li> <li>⑤ <b>화폐정책의 실패</b></li> <li>⑥ <b>시민권의 남발</b></li> </ul>

p.89	<p>③ 로마 시대 크리스천교의 박해      ㉠ 64년 네로와 도미티아누스 시기의 박해      ④ 소규모 박해      ㉡ 64년, 로마 대화재 발생 당시 기독교 신자 박해(베드로, 바울 순교 전해짐)      ㉢ 유대세 납부 문제: 예루살렘 성전 유지비 납부 거부로 클레멘스 및 기독교 신자 박해(~96년)      ㉣ 짧은 시간 한정된 장소에서만 진행. 황제 숭배 거부 문제</p>	<p>③ 로마 시대 크리스천교의 박해      ㉠ 64년 네로와 도미티아누스 시기의 박해      ④ 소규모 박해      ㉡ 64년, 로마 대화재 발생 당시 기독교 신자 박해(베드로, 바울 순교 전해짐)      ㉢ <b>도미티아누스가 부과한 유대세 납부 거부 문제로 클레멘스 및 기독교 신자 박해 (~96년)</b>      ㉣ 짧은 시간 한정된 장소에서만 진행. 황제 숭배 거부 문제</p>
p.12 0	<p>연표 부분 13c  •1055 ~ 1122. 로셀리우스</p>	<p>연표 부분 13c  •1055 ~ 1122. 로 <b>스켈리누스</b></p>
p.12 7	<p>(2) 프랑크 왕국의 발전과 분열 그림 내 용어</p>	<p>(2) 프랑크 왕국의 발전과 분열 그림 내 용어  매로베우스→<b>메로빙거</b> 카를루스→<b>카롤링거</b></p>
p. 128	<p>사료탐구 교황 그레고리우스 2세가 프랑크 왕국의 궁재 카를루스 마르텔에게 보낸 편지(739)</p>	<p>사료탐구 교황 <b>그레고리우스 3세</b>가 프랑크 왕국의 궁재 카를루스 마르텔에게 보낸 편지(739)</p>
p.15 4	<p>(2) 라테란 종교 회의(로마, 1059년)      ① 내용      ㉠ 교황 니콜라오 2세(1058~1061)가 칙서 「In nomine Domini」 공포</p>	<p>(2) 라테란 종교 회의(로마, 1059년)      ① 내용      ㉠ 교황 니콜라오 2세(1058~1061)가 칙서 「In nomine Domini」(<b>주님의 이름으로</b>) 공포</p>
p.15 6	<p>(4) 독일: 보름스 협약(Concordat of Worms, 1122)      ① 교황 칼릭스투스 2세(갈리스토 2세, 1119~1124) &amp; 하인리히 5세(1106~1125)      ② 황제가 교황을 임명하는 이전까지의 관행을 포기, 그 보답으로 교황은 황제가 서임식에 참여하고 봉토를 수여하는 것 인정</p>	<p>(4) 독일: 보름스 협약(Concordat of Worms, 1122)      ① 교황 칼릭스투스 2세(갈리스토 2세, 1119~1124) &amp; 하인리히 5세(1106~1125)      ② 황제가 <b>주교를</b> 임명하는 이전까지의 관행을 포기, 그 보답으로 교황은 황제가 서임식에 참여하고 봉토를 수여하는 것 인정</p>
p.18 0	<p>사료탐구  제3조 국왕 직속 신하의 전체 회의의 승인 없이 군역 대납금이나 특별 보조세를 징수 할 수 없다.</p>	<p>사료탐구  <b>제12조</b> 국왕 직속 신하의 전체 회의의 승인 없이 군역 대납금이나 특별 보조세를 징수 할 수 없다.</p>
p.20 3	<p>(2) 장원제의 붕괴 양상      ① 경영 형태의 변화 - 영주 직영지의 소멸      ㉠ 영주 직영지의 축소: 12~13세기 농민들에게 분할·대여 → 영주 직영지 점차 소멸      ㉡ 경영 형태의 변화: 농노의 노동력으로 진행되던 영주 직영지의 경영의 운영 불가</p>	<p>(2) 장원제의 붕괴 양상      ① 경영 형태의 변화 - 영주 직영지의 소멸      ㉠ 영주 직영지의 축소: 12~13세기 농민들에게 분할·대여 → 영주 직영지 점차 소멸      ㉡ 경영 형태의 변화: 농노의 노동력으로 진행되던 영주 직영지의 <b>경영 불가</b></p>
p.24 9	<p>지도 부분 시카테카스</p>	<p>지도 부분 <b>사카테카스</b></p>

p.25 3	<p>4. 향료 교역과 노예 교역</p> <p>① 향료: 향료란 정향(丁香, clove)과 육두구(nutmeg) 및 육두구의 껌질인 매스(mace)를 말한다. 향료 생산지는 주로 몰라카 제도 및 인근 섬이다. 유럽은 십자군 전쟁 이후 아랍인들을 통해 아시아의 향료에 대해 알게 되었고,</p>	<p>4. 향료 교역과 노예 교역</p> <p>① 향료: 향료란 정향(丁香, clove)과 육두구(nutmeg) 및 육두구의 껌질인 매스(mace)를 말한다. 향료 생산지는 주로 <b>몰루카(Molucca)</b> 제도 및 인근 섬이다. 유럽은 십자군 전쟁 이후 아랍인들을 통해 아시아의 향료에 대해 알게 되었고,</p>
p.26 6	(5) 프랑스: 위그노 전쟁(1562~1629)	(5) 프랑스: 위그노 전쟁(1562~ <b>1598</b> )
p.26 7	<p>알아두기</p> <p>.....또 절대군주인 루이 14세는 1585년 10월 18일 전 조항을 폐지하고, 위그노의 종교적 · 시민적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하였다.....</p>	<p>알아두기</p> <p>.....또 절대군주인 루이 14세는 <b>1685</b>년 10월 18일 전 조항을 폐지하고, 위그노의 종교적 · 시민적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하였다.....</p>
p.27 8	<p>⑤ 엘리자베스 1세(1588~1603): 절대왕정의 절정기</p> <p>알아두기</p> <p>종교정책에서 전 여왕 메리1세의 가톨릭적 반동에 의해서 신구 양파의 항쟁이 격화되었을 때, 여왕은 수장령(首長令)과 통일령(1558)을 부활하여 국왕을 종교상의 최고 권위로서 인정받도록 하였다.....</p>	<p>⑤ 엘리자베스 1세(<b>1558</b>~1603): 절대왕정의 절정기</p> <p>알아두기</p> <p>종교정책에서 전 여왕 메리1세의 가톨릭적 반동에 의해서 신구 양파의 항쟁이 격화되었을 때, 여왕은 수장령(首長令)과 통일령(<b>1559</b>)을 부활하여 국왕을 종교상의 최고 권위로서 인정받도록 하였다.....</p>
p.32 3	<p>알아두기</p> <p>.....이 조치로 인해 충성스러운 가톨릭교도들이 공직에서 밀려났다. 가톨릭교도의 공직 진출 기회를 박탈한 이 법은 1829년에 폐지됐다.</p>	<p>알아두기</p> <p>.....이 조치로 인해 충성스러운 가톨릭교도들이 공직에서 밀려났다. 가톨릭교도의 공직 진출 기회를 박탈한 이 법은 <b>1828</b>년에 폐지됐다.</p>
p.35 3	<p>(1) 나폴레옹의 권력 장악</p> <p>① 자코뱅주의자: 연방주의 반란군의 근거지인 툴롱항(港) 탈환(1793. 12.)</p>	<p>(1) 나폴레옹의 권력 장악</p> <p>① 자코뱅주의자 <b>시질</b>: 연방주의 반란군의 근거지인 툴롱항(港) 탈환(1793. 12.)</p>
p.39 3	<p>비판적 읽기</p> <p>.....이런 노동 계급이 주도한 1848년 혁명에 대해, 생뱅상드풀 회의의 창시자이자 소른본의 교수인 프레데릭 오자남.....</p>	<p>비판적 읽기</p> <p>.....이런 노동 계급이 주도한 1848년 혁명에 대해, 생뱅상드풀(<b>Saint Vincent De Paul</b>) 회의의 창시자이자 소른본의 교수인 프레데릭 오자남.....</p>
p.39 8	<p>(1) 방적 및 방직 기계: 직조 기술 → 방직 기술 → 조면기 발명</p> <p>① 방직기: 플라잉셔틀(flying shuttle, 1733) → 역직기(1784, 증기기관) ② 방직기: 제니 방직기(다추 방직기) → 수력 방직기(공장 출현) → 물 방직기(mule, 증기 기관)</p>	<p>(1) 방적 및 방직 기계: 직조 기술 → 방직 기술 → 조면기 발명</p> <p>① 방직기: <b>케이(J. Kay)</b>의 플라잉셔틀(flying shuttle, 1733) → <b>카트赖特(E. Cartwright)</b>의 역직기(1784, 증기기관) ② 방직기: <b>하그리브스(J. Hargreaves)</b>의 제니 방직기(다추 방직기) → 수력 방직기(공장 출현) → <b>크럼프顿(S. Crompton)</b>의 물 방직기(mule, 증기 기관)</p>

p. 539	<p>(1) 여성운동: 1960년대에 가속화되고 1970년대에 절정</p> <p>① 베티 프리던: 『여성의 신비(The Feminine Mystique)』를 통해 가부장적 사회질서에 대한 도전 촉구</p> <p>② 낙태 고백 사건(1971. 4.): 철학자 보부 아르, 소설가 사강, 배우 드뇌브 등 여성 343명 고백</p> <p>③ 결과: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 급진적 페미니즘과 그에 따른 낙태 및 사회적 편견 제거</p>	<p>(1) 여성운동: 1960년대에 가속화되고 1970년대에 절정</p> <p>① 베티 프리던: 『여성의 신비(The Feminine Mystique)』를 통해 가부장적 사회질서에 대한 도전 촉구, 이후 <b>프리던을 중심으로 1966년 여성지위원회 제3차 연례회의에 참석하였던 몇몇 여성들이 전국여성조직(National Organization for Women)을 결성</b></p> <p>② 전국여성조직은 프리던을 회장으로 전문직·근로직·정부·언론·산업 등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회원으로 수용</p> <p>③ 낙태 고백 사건(1971. 4.): 철학자 보부 아르, 소설가 사강, 배우 드뇌브 등 여성 343명 고백</p> <p>④ 결과: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 급진적 페미니즘과 그에 따른 낙태 및 사회적 편견 제거</p>
p.56 8	<p>② 점차 쇠퇴하여 BCE 330년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의해 멸망</p>	<p>② <b>이후</b> 점차 쇠퇴하여 BCE 330년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의해 멸망</p>
p. 576	<p>㉡ 사산조 페르시아 정복: 까시디야 전투(637), 네하완트 전투(642) → 사산조 멸망(651)</p>	<p>㉡ 사산조 페르시아 정복: <b>까디시야</b> 전투(637), 네하완트 전투(642) → 사산조 멸망(651)</p>